한국문학논총 제55집(2010. 8) 67~92쪽

한국전쟁과 강원지역문학*

- 지역문학장의 양상을 중심으로

남 기 택**

차 례

Ⅰ. 머리말
Ⅱ. 한국전쟁 이전의 매체 양상
Ⅲ. 전후 강원지역문학장의 구성
Ⅳ.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전쟁기 강원지역에 존재한 대표적 문화매체로 『강원일보』가 있다. 준비위 격으로 만들어진 「彭吳通信」을 전신으로 하는 『강원일보』는 지역문학장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계기를 마련한다. 그 밖에 『동방신문』, 『강릉일보』, 『동해일보』 등이 전쟁을 전후하여 지역의 문화매체로 기능한 바 있다. 더불어 『좁은문』, 『청포도』, 『보리밭』 등 개별지역 단위 동인활동이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 강원지역문학장의 구조적 특징이라 하겠다. 작가로는 김동명, 최인희, 황금찬, 이성교, 박인환, 박기원, 진인탁, 김영준 등을 1950년대 지역문단의 주요 전거로 들었다.

* 이 논문은 한국문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2010. 6. 12)의 기획주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강원대 교양학부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강원지역은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문학을 포함한 문화계 전반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학적 배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자연적 조건은 문학 내용에 있어서 인생과 자연으로 일관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한다. 그 결과 한국전쟁은 강원지역 문단에 두 가지 방향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는 문단 자체의 비수월성이며, 둘째는 문학 내용의 순수서정화이다.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동인지문단은 이후에도 구조적 경향을 반복하면서 현단계 강원지역 문학장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 강원지역문학장에 대한 재구는 한국문학의 총량을 더하고 기존 문학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강원지역문학, 『강원일보』, 동인지, 매체, 지역성, 한국전쟁

Ⅰ. 머리말

본고는 한국사회의 대타자(Other)로 존재하고 있는 6·25 전쟁이 지역문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타자로서의 한국전쟁이란 현단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라 하더라도 그 형성과 성격에 있어서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범박한 사실을 가리킨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그에 관한 객관적 시각과 이론의 확보는 지역문학 문제로까지 관점을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지역문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지역문학담론의 층위를 심화시키는 흐름과 연동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지역문학장이라는 단위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존재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본고에서 상론하고자 하는 대상은 강원지역문학인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문학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지역 출신 작가나 지역에 근거한 문학 및 문화단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닌바 이로부터 파생되는 강원지역문학의 전사가 분명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강원지역문학의 전사라 할—대상들을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하나는 지역문학이라는 범주 설정의 문제이다. '지역문학'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지닌 문제적 대상이다. 기왕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합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은 그 다층적 성격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폭넓게 지역과의 직간접적 관계 속에 놓이며 지역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단위를 지역문학의 범주로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문학에 대한 정당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작위적 성격이 강한 바 연구자의 주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학론 내부에서도 문제적 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강원지역문학'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당위성을 지니리라 본다.[2]

---

1) 서준섭, 「강원도 근대문학연구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11,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2; 엄창섭, 「강원문학의 사적 고찰—영동지역의 현대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양문규, 「강원지역문학의 생성방식과 발현양상」, 『작가와사회』 2004년 가을호; 전상국, 「강원 문학의 역사와 현황」,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룸, 2005 등 참조.

2) 또한 본고의 논점이 개념 설정의 당위성에 주목하는 원론적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에 관한 상론은 생략한다. 다만 본고가 유념하는 지역문학의 범주에 대해서는 아래 입장을 참고하기로 한다. "지역문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 일차적 근거는 해당 작가가 지역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문학을 규정하는 일차적 조건, 혹은 실존적 조건으로서 지역문학의 형식이라는 층위를 이룬다. 지역문학이 그 형식을 지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성'을 담보하는 문학의 내적 기제가 있다. 이는 작품의 주제나 표현 방식, 의미와의 관련성 차원으로서 지역문학의 내용 층위를 이룬다. 고유한 향토색, 지역적 서정, 지역적 삶의 내면적 승화 등등이 이와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은 지역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전제 아래 본고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강원지역문학의 양상을 개관할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형성된 문학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적 정체성 논구는 지역문학론의 궁극적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인 만큼 이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미진한 강원문학사를 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또한 한국문학의 총량을 더하고 기존 한국문학사를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겠다.

Ⅱ. 한국전쟁 이전의 매체 양상

본격적인 문학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대 강원지역문학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매체에 대한 고찰은 문학장의 전사를 재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강원지역에 존재한 대표적인 문화매체는 1945년에 창간된 『강원일보』라 하겠다. 『강원일보』는 준비위 격으로 만들어진 「彭吳通信」을 전신으로 한다. 「팽오통신」은 건준(건국준비위원회) 문화부에서 독립한 문화동지회의 중심멤버들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들은 여운형에 반대하여 건준에서 이탈, 민간단체인 문화동지회를 조직한다. 중심 인물은 남궁태를 위시하여 권오창, 최상기, 김학인, 인종기, 양한웅 등이다. 이들은 강원지역에도 민초들의 소리를 대변할 일간신문을 창간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사전작업차 지역

학의 '종속성'을 규정하는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중앙과 지역을 이항대립적으로 구분하는 종속의 조건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통칭 중앙 문단과의 변별적 거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결국 지역문학의 종속성을 규정하는바 이를 지역문학의 실정적 층위라 부르기로 하자." 남기택,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남기택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5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신을 발행했던 것이 「팽오통신」인 것이다.

> 팽오통신은 활자인쇄가 아닌 등사판 프린트물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체제가 신문과 같았다. 제1면은 정치·경제, 제2면은 사회·문화면이었으며 1면에는 사설 칼럼란까지 만들었다. 발행부수는 처음에는 1백부였으나 1주일 후부터 2백부로 늘렸고 제호는 꼬딕체, 횡서였다. '彭吳'라는 이름은 단군이 팽오라는 사람을 강원도지방에 보내 홍익인간의 이상을 펴려 했다는 데서 구전되어 오며 개척자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팽오통신은 신문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제26호까지 발행하고 바톤을 강원일보에 넘겼다.[3]

이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강원일보』는 보수 우익인사들이 지역에서 정론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팽오통신」의 활동을 이어받아 1945년 10월 24일 창간호를 발행한 『강원일보』는 타블로이드 2면, 각 7단으로서 1면에 사설을 비롯한 정치·경제뉴스, 2면에 사회·문화기사를 실었고, 본문은 5호활자를 썼다. 초창기 동인들은 ① 민족과 사회의 정화, ② 민주독립국의 건설, ③ 문화창달, ④ 破邪顯正 등에의 헌신을 모토로 내세웠다.[4] 『강원일보』는 1945년 12월 신의주 학생사건이 일어난 것을 남한 최초로 보도하고, 1948년에는 독도오폭사건을 국내 최초로 특종보도(1948. 6. 9)하는 등 의욕적 활동을 전개한다.

문학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강원일보』는 직간접적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947년 12월 9일자의 사고문은 신춘문예 모집에 관한 것으로서, 부문은 논문 수필 소설 시 동요 등 5개 분야이다.[5] 최초의 신춘문예 입

3) 강원일보사사편찬위원회, 『강원일보 40년사』, 강원일보사, 1985, 76쪽.
4) 위의 책, 같은 쪽.
5) 상금은 1등 3천원, 2등 1천원, 3등 5백원이다. 규격은 논문 500행 이내(10자 1행), 수필 500행 이내, 소설은 단편소설에 한하고, 접수기간은 12월 10일부터 25일 사이로 공고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선자 및 작품명은 허만욱의 「건설의 탑을 세우자」(논문), 송효성의 「舍廊 여자」(소설), 장준식의 「조국」(시), 홍준표의 「산책」(수필), 임훈식의 「담배불」(꽁트), 최홍경의 「동생 장난감」(동요) 등이다.

하늘 가까이
叡智의 눈동자처럼 天池 있고
줄기 줄기 기름진 江물
誼이 좋게 골으로 흐르고
白頭 妙香 太白 智異 뭇 山勢는
聖者의 이마처럼
맑은 하늘 가에 빛났어도

황폐한 거리
太陽을 등진 이땅에는
슬픔이 주검보다 무서운
기나긴 서른여섯해 였다
이제엔 얘기로 욕된
주거니 받거니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다시 우럴어보는 우리들의 하늘에
날씨 궂은 氣流가 흘러

가슴을 터뜨려
미칠듯 노래하던 우리의 自由가
아—상기 解放이 왔다는 山川
이땅에서 멀고나

오—解放이여!
우리를 蒙昧에도 잊지 못할
自主獨立 참된 自由 解放이여!

—장준식, 「조국」 부분

시부문 입선작인 위 작품은 해방을 맞는 감격과 소회를 다지는 등 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형적인 애국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격정이 채 사라지지 않은 감정적 어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처럼 『강원일보』는 신춘문예작품을 모집한 것을 위시하여 장편소설 연재(박희준, 「연희의 반생」, 1948)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문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1949년 6월 15일에는 지령 1,000호를 기념하여 영화의 밤, 3만원 문예 현상모집 등의 문화행사를 주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 彭吳通信으로서 發足한 本報가 來 15일로서 紙齡 1千號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돌아보건대 5個星霜! 荊棘의 途上에서 교통 경제 등등의 諸般苦衷을 극복하고 報道 계몽의 言論이 負荷한 硬堅히 하여 오며 紙齡 1千號를 맞게 되었음은 오로지 讀者諸賢의 애호와 有志諸氏의 끊임없는 鞭撻의 혜택이옵기 심심한 謝意를 드림과 동시에 微意나마 이에 報코저 「培版 발행」「文藝 현상모집」「讀者慰安 映畵의 밤」 등의 行事와 아울러 言論으로서의 負荷된 사명의 완수를 盟誓하오니 倍前의 애호 鞭撻이 있아옵길 冀望하옵나이다.[6]

한편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역에서는 『동방신문』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동방신문』은 1945년 9월 7일 미군정 당국의 신문발행 허가 제1호로 발행되었다. 사장 겸 주필 김석호, 편집국장 염태근, 업무국장 김덕기, 기자 박상민 김광래, 편집 이준호 등이 참여했다. 형태는 타블로이드판 2면을 등사판으로 인쇄했고, 1면은 미군정 당국의 포고문 또는 행정지침을, 2면은 지방뉴스를 게재했다. 보급 구역은 강릉 명주 삼척 일원과 정선 평창의 일부 지역이었으며, 1946년 1월부터는 강릉인쇄소의 협조를 얻어 활판인쇄로 신문을 발행했다. 『동방신문』의 주조는 민족진영의 우익지를 표방했고, 그런 까닭에 행정당국의 발표문 위주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동방신문』이 주민계도적인 측면의 매체이었음

6) 「謹告 紙齡 1千號를 앞두고」(社告), 『강원일보』, 1949. 6. 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알 수 있다.[7]

반면 계급문학적 차원에서의 매체와 관련해서는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의 지부활동을 들고자 한다. 문련은 1946년 2월 24일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통합하여 발족한 좌파 단체로서 아래의 기사를 통해 강원지역에도 문련의 지부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제 이와 가치 朝鮮民主主義 國家建設의 絶大한 推進力이 되어잇는 南朝鮮의 藝術運動과 文化運動은 다시 各 地方으로 擴散하야 名實이 相半한 人民의 藝術과 文化를 建設할 氣運이 濃厚해진 것은 참으로 우리가 慶賀해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우선 各道에 잇서서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의 支部로서 **江原道文化人聯盟**, (중략) 各其 結成되었다는 報道가 最近에 連續하여 들어왔다. 그리고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의 傘下團體로 서울시에는 이미 그 支部들이 결성된 지 오래고 仁川, 開城, 水原, **春川**, 大田, 釜山, 木浦, 安城과 가튼 主要한 都市에 있는 文學, 音樂, 演劇 등 各種 文化團體도 中央에 잇는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이나 그 傘下團體와는 不絶한 有機的인 連絡을 갓고 있다.[8](강조는 인용자)

이들 단체의 존재는 해방 이후 사회 각 부분은 물론 문화예술계 흐름을 주도했던 좌파계열의 활동이 강원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사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논급이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한국전쟁 이전 강원지역에서의 구체적 문학활동의 예로는 춘천을 근거지로 한 동인지 『좁은문』 발간(1948)을 들 수 있다. 동인으로는 이재학, 김세한, 이형근, 신철군, 장운상, 유광열, 구혜영, 한옥수, 임혜자, 장동림, 장독, 장건 등이었다고 한다.[9] 그 밖에 1940년대 춘천을 중심으로

---

7) 『강원일보 40년사』, 앞의 책, 76-77쪽 참조.
8) 「建國途上의 地方文化運動」(사설), 『문화일보』, 1947. 3. 15.
9) 전상국, 앞의 책, 316쪽.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편 것은 구혜영(소설), 유광열(시) 등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강원지역의 문단 형성과 관계가 있던 인물로는 박영희, 신영철, 이태극 등이 거론되고 있다.

Ⅲ. 전후 강원지역문학장의 구성

1. 언론매체의 양상

해방 이후 불모지와 다름없던 지역의 현실 속에서 『강원일보』는 문화운동의 기수를 자임하며 의욕적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그 활동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고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했던 강원도청과 함께 신문사의 활동도 중단된다. 이후 1951년 4월 15일 당시 원주읍에 강원도청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임시사무소는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30일 강원도청이 춘천으로 수복될 때까지 도청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강원일보』는 1952년 5월 12일 원주읍에서 속간호를 발행하였고, 신문사가 춘천으로 돌아온 것은 1954년 3월 10일의 일이다.[10]

영동지역의 『동방신문』 역시 한국전쟁과 더불어 폐간되는데 전시 중에 강릉에서 『강릉일보』가, 속초에서 『동해일보』가 일간으로 창간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강릉일보』는 1950년 12월 『동방신문』 창간을 주도했던 김석호를 사장으로 추대하고 편집국장 심상열, 총무국장 이상민, 업무국장 김덕기 등을 주축으로 발행된다. 강릉과 삼척 등을 보급 영역으로 하여 570호까지 발행하였으나 재정난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동해일보』는 운영자 박태송을 중심으로 1952년 4월 15일 속초에서 창간, 속초 고성 양양 등 수복 지구를 보급 영역으로 삼았다. 1년간은 등사판으로, 그 후에는 활자로 발간되던 『동해일보』는 1955년 3월, 공보처

10) 『강원일보 40년사』, 앞의 책, 11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발행허가를 받지 못해 자진 폐간되었다. 이후 『동해일보』의 경영진이 판권만 갖기로 하고 휴간중인 『강릉일보』를 인수하여 1955년 7월 15일 속간하였으나 결국 운영난으로 1957년 7월 19일 자진 폐간하였다.[11]

해방 이후 속초 고성 양양 등의 변방지역에서 문화적 시혜가 전무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갈 만한 일이다. 신문에 지역이 거명되는 것도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이후였던바, 한국전쟁 전에는 양양 38선 근방에서 발생한 남북한 교전상황이 기사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양양과 고성지역은 1950년 10월 수복되었으나 공방이 이어졌고 1951년 6월에 재수복된다. 이어 8월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군정이 실시된 후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1954. 11)이 시행되기 전까지 양양과 고성은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UN군 관할 지역이었다.[12] 이런 조건 속에서도 휴전(1953. 7. 27) 때까지 강원도에는 열악하기는 하지만 『강원일보』, 『강릉일보』, 『동해일보』의 이른바 '3사시대'가 존재하였다. 강원지역이 최전선 전장지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매체의 구도는 고무적 사실이라 하겠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침체기 이후 강원지역문학이 새롭게 태동하는 데에는 『강원일보』가 직간접적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신춘문예제도를 통해 지역문인을 양성하는 매체로서 기능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전상국, 이승훈, 백혜자 등 현재 강원지역의 문학과 문화를 논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1950년대 춘천에서 수학하면서 『강원일보』의 학생문단과 인연을 맺게 된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강원일보』는 한국 최초로 지방지 특성화를 의도적으로 지향하기 시작했다. 1957년 10월부터 종래의 중앙뉴스 편중에서 탈피하여 지방기사로 전지면을 채우는 편집방침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각 지방지들이 중앙뉴스에 의존하여 신문을 제작하던 시기에 전국

11) 『강릉시사』, 강릉문화원, 1996 참조.
12) 『설악신문』 923호, 2009. 9. 14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처음으로 지방기사로 전지면을 채우는 이른바 지방 특성화를 단행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강원지역의 거점 언론이 표방하는 이러한 성격은 지역문화와 문학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1958년 3월 15일부터는 일요배판(4면) 발행을 계기로 문화면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문예 발표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양, 오락물 등을 다루어 지역문화와 정서 계발의 발판을 마련한다. 동년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 동화대회를 열었고, 이어 광복절을 계기로 제1회 강원도 초중고교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실시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서 1959년 2월 5일자 사고에서는 '군인페이지' 신설을 알리고 군인들의 원고와 군부소식을 싣기 시작한다. 매주 1회 일요일자 2면에 실린 군인들의 원고는 영내생활수기, 미담가화, 후방 국민에 대한 요망, 고향에 보내는 소식, 전투수기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이 지면은 부대탐방, 지휘관 인터뷰 등 군관계 기사를 집중적으로 실었다.[13]

2. 동인활동의 양상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활동은 강원지역문학의 전형적 특성을 구성한다. 대표적 사례가 전쟁기에 이루어진 '청포도시동인회'의 활동이다.[14] 황금찬, 최인희, 김유진, 이인수, 함혜련 등이 1951년 강릉에서 조직한 이 모임은 1952년 동인지 『청포도』를 창간하고 2집(1953)까지 발간한다. 『청포도』는 등단 문인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아니었다. 단명에 그치고 만 역사 역시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반증한다. 하지만 『청포도』의

13) 이상 『강원일보 40년사』, 앞의 책, 117-125쪽 참조, 재인용.
14) 전상국은 "1969년 첫 모임을 가진 뒤 1971년 1월에 발간된 『표현』 1집은 춘천은 물론 강원도 최초의 시동인지"(앞의 책, 321쪽)라고 기록하는데, 이보다 앞서 비록 단명에 그쳤지만 강릉을 중심으로 한 시동인지 『청포도』가 존재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존재는 이후 지역문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陽地바른 언덕 위에
> 겹겹이 싸인 나무 잎들이 포다하게
> 말으는 한낮
>
> 눈은 아직 먼 山에 슬리어 있고
> 바위 틈에 다시 흐르는 물 소리!
>
> 땅속에는 제각기 그리움에 커가는 生命이
> 이 한낮 따스한 잠에 속잎이 생긴다.
>
> — 최인희, 「待春賦」(『청포도』 창간호) 부분

위 작품은 청포도 동인들의 작품세계를 상징적으로 전조한다.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 사물의 원리와 생을 노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포도 동인을 대표하는 황금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멀리 돌아간 산구빗길/ 못 올 길처럼 슬픔이 일고// 산비/ 구름 속에 조으는 밤// 길처럼 애달픈/ 꿈이 있었다"(황금찬, 「보내놓고」, 『청포도』 2호)와 같이 풍경 속에 담긴 생의 의미를 천착하는 단형 서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교사의 신분으로 『청포도』를 주도했던 황금찬, 최인희 등은 이전에도 각 학교에서 『영동』(농업학교), 『대관령』(상업학교), 『花浮山』(여학교), 『師道』(사범학교) 등의 교지가 발간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포도』 이후 이들 동인과 더불어 신봉승, 심구섭 등 학생을 포함하는 또 다른 동인지 『보리밭』이 창간(1952)되기도 한다.[15] 이로써 『청포도』의 존재는 일회적이고 우연한 일화가 아닌 전후 강원지역문학을 형성하고 주된 성격을 구성하는 지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다.

---

15) 신봉승, 「『관동문학』 50년과 함께한 세월」, 『관동문학』 21호, 관동문학회, 2008, 12-1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서지역에서는 전후 『강원일보』가 공모한 신춘학생문예작품에서 입상한 춘천시내 문예반 출신들이 1959년 결성한 '봉의문학회'(동인은 이승훈, 전상국, 허남헌, 유근, 유연선, 손명희, 김주경, 백혜자 등이며 이후 '예맥문학회'로 개명)의 활동이 6·25 이후 춘천지역 최초의 동인활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 동인들의 소년기 전쟁 경험은 일종의 원체험으로서 이후 문학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이덕성, 이희철, 이형근, 이기원, 이만선 등도 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단에서의 주요 활동을 보인다.[16]

역시 1959년 조직된 '관동문학회'의 기관지 『관동문학』은 범지역적인 문학매체를 자임하며 오늘날까지 강원지역문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단명한 1950년대의 기타 동인활동에 비해 그 명맥이 5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 단체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인바 1950년대의 관동문학회는 신봉승 등의 개인적 활동이 중심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7]

그 밖에 지역적 특성상 군인들의 문학모임도 소규모나마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양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통역장교들의 동인지인 『造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습작활동은 물론 지역 학생문단의 경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동인지를 통해 촌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18] 정훈문학의 존재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강원지역문학의 일요소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인문화는 이곳의 주요 매체에서도 특화시킬 만큼 지역문화의 한 층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전쟁을 전후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성격일 수도 있겠으나 강원지역의 경우 그 지정학적 조건상 정훈문학이 특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한 사료의

16) 전상국, 앞의 책, 317-318쪽.
17) 관동문학회를 비롯한 1960년대 이후의 동인매체에 대해서는 남기택, 「강원지역의 문학매체 고찰」,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2 참조.
18) 신봉승, 앞의 글, 14-1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확보와 검토 역시 이곳 지역문학 연구의 과제라 하겠다.

강원지역의 문학활동은 이처럼 개별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인 동인활동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동인활동에는 그 발아의 기원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외적 요인과 소통 곤란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개별지역 단위의 동인활동은 1960년대 이후 문학장의 아비투스로서 본격적으로 자리하게 된다.

3. 개별 작가의 양상

본 절에서는 한국전쟁기 강원지역문학으로 논의될 수 있는 개별 작가의 경우를 예시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강원지역의 문학적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구한말 의병활동의 일환으로 춘천 등지에서 제작되었던 의병가사, 강원지역을 소재로 하는 신소설, 근대문학의 본격적 전개 과정에서 이효석과 김유정 등의 사례는 강원지역문학을 논구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연관을 지닌다. 기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심연수나 한용운 등의 문학이 현단계 강원지역문학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문학적 실체와 무관하게, 지역문학의 실정적 의미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요 지역문학적 전사라 하겠다.

1950년대 개별 작가의 양상 역시 전쟁기 강원지역문단의 효시격으로 거론했던 청포도 동인의 면모를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이다. 최인희(1926-1958)의 경우 지역 출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작품세계에 있어서도 강원지역문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맥락을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강원지역문학의 성격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는 그의 등단작 3편이 전쟁을 전후하여 상재되었고, 이어지는 문학세계가 1950년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전쟁기 강원지역문학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청포도시동인회의 주축 구성원이었던 사실, 이후 최인희 문학상 등으로 지역문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는 사실 등에서 두루 확인되는 바이다.

최인희는 한국전쟁 직전에 『문예』를 통해 두 편의 시를 발표한다. 「낙조」(『문예』, 1950. 4)와 「비개인 저녁」(『문예』, 1950. 6)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전원 풍경을 소재로 전형적인 서정을 표현한다. 불필요한 수사가 없는 정제된 표현 역시 최인희 시의 특징적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천료 작품인 「길」(『문예』, 1953. 6)은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사색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추천 게재한 모윤숙은 "최씨는 四年前에 이미 二回의推薦을 얻었던 사람으로서 뛰여난 才能은 보이지 않으나 그 素朴하고 健實한 詩精神이危殆롭지 않음을좋게 본것"[19]이라고 평한다. 모윤숙의 직감은 시적 재기보다는 소담한 형식으로 생의 의미를 관조해 나가는 최인희 시의 태도를 간파하고 있다. 이 작품은 "누가 지나갔을 갈림길에서/ 마음 서운하여 도라보며 가는 길에// 길의 비롯함은 어디서인지/ 말해 줄 아무도 없다"와 같이 일종의 실존적 고독을 노래한다. 이는 기존의 목가풍 정서와는 다른 것으로 전쟁의 경험이라는 변인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20]

이른바 '동해안 시인'으로 별칭되기도 하는 황금찬(1918-)은 1953년 『문예』로부터 1956년 『현대문학』을 거쳐 천료, 데뷔한다. 정식 데뷔는 늦었으나 연배나 문학활동 면에서 최인희보다 앞섰으며 당대 지역문단에의 영향 역시 절대적이었던 인물이 황금찬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찬 시에서 강원지역문학과의 관련성은 출신 지역이 속초라는 점과 등단 이전인 전쟁기 강릉에서의 교편생활 경험이라 하겠다.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은 지연적 경험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이유도 있겠으나 '나비' 등으로 상징되는바 순수성과 생명성 추구의 문학세계가 지닌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시집[22]에 담

19) 모윤숙, 「詩薦後感」, 『문예』, 1953. 6, 78쪽.
20) 남기택, 「최인희 시 연구」,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6 참조.
21) 황금찬의 출생지는 강원 속초이지만 함북 성진에서 오래 살았고 등단 이후에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상 황금찬의 등단과정과 작품세계, 작가 스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긴 초기시들의 주조, 즉 시조적 발상을 배경으로 한 향토색은 지역문학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일요소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 경험의 충격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한국사회라는 전체 단위를 관류하는 주된 정조였음을 황금찬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등단작 중 하나인 "사람은 가고/ 성터는 남아/ 무상함이 이리도 새삼스럽다/ 무너진 성돌 위에 푸른 이끼/ 세월을 남기고 간 슬픈 얘기여"라는 「접동새」의 표현은 전후의 상실감과 존재론적 비애를 표출한다. 이는 또한 황금찬의 시적 출발과 관련된 시조적 경향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인 형식미학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들에 앞서, 강원지역의 문학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김동명(1900-1968)이다. 강릉 출신인 김동명은 『개벽』을 통해 등단(1923)하였고, 김유정 이효석 등과 더불어 근대 강원지역문학의 원류격으로 기억되고 있다.[23] 그런데 김동명 역시 황금찬과 유사하게 지역문학적 전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향토 출신 시인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할 수 없는 경우"[24]라 하겠다. 실로 그의 작품은 초기작에서부터 "오직 서리에 잎 붉고/ 가을 하늘에 떼 기러기의 울음이 높거던/ 달 아래로 가소서/ 무너지는 잎 싸늘한 달빛 속으로/ 스며드는 내 노래를 찾으오리다"(「懷疑者들에게」)와 같이 감상적, 퇴폐적 경향으로 대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작품과 더불어 「祈願」 등의 작품이 발표된 『개벽』 12월호가 '강원도 특집호'였던 점은 김동명 시의 강원지역 문학적 배경이 데뷔 당시부터 발견되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그가 소년시절 원산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주변으로부터 강릉군수의 재목으로 기

로의 회고에 대해서는 송기한·황금찬, 「시와 시인을 찾아서」(대담), 『시와시학』 24호, 1996. 12, 21-26쪽 참조.

22) 황금찬, 『현장』, 청강출판사, 1965.

23) 그리하여 김동명은 "강원 문학사에서 최초의 시인이라고 지칭"된다. 서준섭·박민수·송준영, 「강원도 시단과 시를 말한다—지역성, 특이성, 보편성」(좌담), 『현대시』 2003년 8월호, 40쪽.

24) 서준섭, 「강원도 근대문학 연구에 대하여」, 앞의 글, 11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되었다는 회고도 지역적 연고를 살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25] 그리하여 김동명의 작품세계는 전후에도 강원지역문학과의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으리라 본다.

1950년대 한국문학사를 통해 잘 알려진 박인환(1926-1956)은 인제 출신으로서 전후 강원지역문학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박인환이 '후반기' 동인의 일원으로 전후 모더니즘을 이끈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원지역문학장 내에서 자연에 기초한 순수 서정이라는 주류 흐름과 대비되는 특징적 사례로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 하겠다.

삼척 출신으로서 지역문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인이자 학자인 이성교(1932-)는 195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다. 등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학활동을 서울에서 펼친 그이지만 작품세계 곳곳에 지역적 삶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26] 서정주 역시 이성교의 시세계를 "강원도적인 골격과 풍류와 서정"[27]의 세계로 적시함으로써 지역적 삶이 시작의 원천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50년대는 물론 이성교 전체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박기원(1908-1978) 역시 전쟁기 강원지역문학사의 구성을 위해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박기원은 "『民聲』, 『文藝公論』에 작품을 발표하며 동양적인 서정의 세계를 깊이 탐구한 강릉 출신의 시인"[28]으로 짧게 기록되고 있다. 1929년에 등단한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 시집 『호반의 침묵』 원고를 일경에게 압수당해 발간이 무산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그가 처음 시집을 상재한 것이 1953년 2인시집 『寒火集』[29]이다. 박기원 시 중에

25) 엄창섭, 『김동명 연구』, 학문사, 1987, 20쪽.
26) 이에 대해서는 남기택, 「삼척지역문학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2, 371-372쪽 참조.
27) 이성교 1시집 『산음가』에서 서정주의 「序」. 인용은 『이성교 시전집』, 형설출판사, 1997, 17쪽.
28) 엄창섭, 「강원문학의 사적 고찰」, 앞의 글, 338쪽.
29) 박기원 · 최재형, 『한화집』, 현대사, 19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베틀에서 내리니 샛별이 진다/ 한숨 밴 북끝에 첫닭이 울어/ 열두 새 실꾸리 시름을 짜는/ 아람찬 베폭 嶺東 細上布”(「織女別曲」, 『松竹梅蘭』, 1969)와 같이 전통적인 설화에 바탕하여 민족 감정을 승화하는 상당한 수준을 볼 수 있다. 여기 표현된 바와 같이 “영동 세상포”를 매개로 “인간의 이별보단” 나은 “천상의 인연”을 노래하는 서정은 암하노불(岩下老佛)이라는 강원지역 정서를 환기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로부터 배태되는 보편적 공감을 수반하고 있다.

한편 진인탁(1923-1993) 시는 전쟁기 강원지역문학의 양상을 사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진인탁은 1948년 「食母」, 「土窟」 등을 『동국시집』 1집에 발표하고, 1949년 5월 동일 작품을 『학생과문학』에 김기림의 추천으로 게재하면서 등단한다. 전쟁기 삼척군 북평고에서의 교편활동 이외에 진인탁의 삶은 주로 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생업으로 인하여 문학활동을 지속할 수도 없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학장 내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양상은 그 자체로 전쟁이 가져온 문학적 황폐화와 그 와중에도 지속된 지역적 삶의 형상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고향과 역사를 소재로 하는 긴장된 시편들[31]은 사후적이나마 지역문학적 의미망을 구성하는 실증적 사례라 하겠다.

그 밖에 김영준(1934-1996)의 시는 생활문학운동으로서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춘천 출신인 그는 영동지역에 거주하며 평생을 지역문화운동에 헌신한다. 그 결과 강원영동지역문학사에서는 빠트릴 수 없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제대로 된 시집 한 권을 상재하지 않는 등 삶으로서의 문학을 실천한 독특한 문학적 이력을 지닌다.[32] 이는 전쟁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이주의 생이 부여한 문학적

30) 진인탁은 말년에야 유일한 시집 『자화상』(반도출판사, 1991)을 발행한다.
31) 남기택, 앞의 글, 367-369쪽 참조.
32) 김영준의 시집은 유고집으로 『길 · 세월 · 밤』, 『누가 무엇을 숨길 수 있으랴』(이상 혜화당, 1997)가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형태일 수 있겠다.

이상으로 1950년대 강원지역문학의 일부 사례를 예시해 보았다. 이들이 지연적 연관 외에 지역문학적 내용성을 의도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역문학장의 분화 자체가 전쟁 이후 본격적 지역화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역문학 연구가 한국문학 연구의 일환이요 그 총량을 밝히는 거시적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지역문학적 접근은 기존의 문학사적 관점이 아우르지 못한 문학적 총량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논거라 할 것이다.

4. 전후 강원지역문학장의 성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기 강원지역문학의 양상은 지극히 열악한 것이었다. 이러한 매체 및 동인, 개별 작가의 활동 등은 그 자체로 1950년대 강원지역문학의 현실이요 나아가 한국문학의 한 현상이었다. 기존 문학사를 통해 보듯 한국전쟁은 남북한 문학 이질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해방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소위 '분단문학'은 전쟁을 계기로 고착화되었다. 사실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상황은 당시 문학은 물론 여타 예술과 사회제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기의 시는 전쟁현장의 시였다고도 할 수 있다.[33] 전쟁체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들은 전쟁의 가열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실존적 몸부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선험적 조건에 모든 창작 역량이 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문학작품이 어느 역사적 사실에 의해 그 내용과 형식을 지배받는다면 그것이 지닌 예술적 의의는

33) 최동호, 「1950년대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김윤식 · 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증보판), 현대문학사, 1994, 313쪽. 그리고 이경수, 「민족시 형성의 과제와 부정의 정신」,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1995, 139쪽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반감되고 말 것이다.

순수 서정시는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전통적 요소인바 이러한 경향이 전후에 계승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분단문학 극복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작품에서는 "현실의 고통을 개인적 감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극복하려는 정신세계"[34]를 보여준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내면세계로의 매몰 경향이 강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남한 시단의 다른 한 축에는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시운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성의 문학, 질서, 권위 등을 부정하고 1930년대 모더니즘의 감각과 기법을 받아들여 새롭게 모더니즘 시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대결하려는 절박한 자의식, 현란하고 장식적인 이미지, 죽음과 폐허의 그늘에서 삶의 허망함이나마 새로운 감각으로 포착해 내려는 시도 등을 보여주었다. 모더니즘 운동의 의의는 전통의 답습보다는 새로운 기법을 구사하여 50년대적 고뇌에 시적 형식을 부여해보려 했다는 데에 있다.[35]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컸던 나머지 문명 비판과 기성 부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공허한 관념의 포즈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시장르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대개 소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36]

---

34) 이경수, 앞의 글, 141면.

35) 최동호, 앞의 글, 321쪽.

36) 예컨대 이재선은 이 시대 소설이 전쟁이라는 인위적 재난으로서의 파괴성에 의한 피해를 묘사하거나 결여된 휴머니티와 평화주의를 고양하는 두 개의 큰 측면으로 전개되었다고 지적한다.(이재선,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김윤식·김우종 외, 앞의 책, 333쪽) 50년대 소설의 의의는 분단문학의 관점에서 전쟁 폐해와 상처를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비록 전쟁의 피해를 비본질적인 차원에서 모사한 수준에 그친 것이긴 하지만, 당대의 분단인식을 각종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오늘날의 분단문학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차원현, 「1950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13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와 같은 전후문단의 전반적 경향에 비출 때 강원지역문학은 주로 순수 서정의 맥락을 따르는 형국이라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는 전문적인 지역문학의 매체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개별 작품의 양상이 삶과 문학의 원천인 지역적 삶과는 거리가 먼 다소 주관적인 혹은 문학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격이 전쟁기 당대를 넘어 이후 강원지역문학장의 구조적 속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은 1950년대 강원지역문학의 현상은 이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첫째는 문단 자체의 비수월성이며, 둘째는 문학 내용의 순수서정화이다. 강원지역은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문학을 포함한 문화계 전반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정훈문학을 위시하여 반공과 순수로 문학적 내용이 일관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동인지문단은 이후에도 구조적 경향을 반복하면서 현단계 강원지역문학장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후문학적 제경향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서 전후 남북한 사회의 대타자격 존재인 전쟁은 문학에도 지배적 결정인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대의 창작 주체들이 전쟁이라는 타자에, 그것이 수반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타자에 선험적으로 지배된 나머지 그 역반응인 주체의 강화로 모든 문학적 경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후문학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과 삶의 고통을 개인의식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지 못한 채 정신적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37]는 것이다. 이는 전후 남북한 문학의 공통된 한계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성적이고 총체적인 주체의 소멸로써 문학의 경

3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0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향을 진단하고 있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자성의 선험적 지배를 받던 시대로부터 타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확보는 통일문학사를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지역문학은 이처럼 문학의 타자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도 주요한 이론적 범주가 될 수 있다.

Ⅳ. 맺음말

한국전쟁이 가져온 강원지역문학의 결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한 매체 상실은 개인의 문학적 단절은 물론 강원문학 전반에 아마추어리즘적 경향을 조성하는 큰타자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단 최전선에서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이해야 했던 지정학적 조건, 휴전 이후에도 계속된 남한사회 내에서의 소외구조 등이 연동된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은 강원지역문단에 두 가지 방향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문단 자체의 비수월성이며, 둘째는 문학 내용의 순수서정화이다. 동시기에 진행된 부산경남지역과 제주지역의 문학활동을 대비하자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정훈문학을 위시하여 반공과 순수로 문학적 내용이 일관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한다. 강원지역 출신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여 제주지역에서 활동한 김구량의 사례는 강원지역문학이 전쟁을 전후하여 겪어야 했던 이주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38]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동인지문단은 이후에도 구조적 경향을 반복하면서 현단계 강원지역문학장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38) '이주의 운명'이라는 표현은 강원지역문학의 내면이 아닌 외형적 사실을 비유하는바 강원지역문학장 자체가 해체되고 만 현실을 가리키고자 함이다. 전쟁기 제주지역에서 김구량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윤, 「전란기의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2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 강원지역문학으로 논의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와 작가의 사례를 예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대상 텍스트들이 지연적 연관 외에 지역문학적 정체성을 크게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문학장의 형성 자체가 전쟁 이후 본격적인 지역 분화의 과정과 맞물린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는 지역문학 연구가 한국문학 연구의 일환이요 그 총량을 밝히는 거시적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역문학적 접근은 기존의 문학사적 관점이 아우르지 못한 문학적 다양성을 밝히는 하나의 논거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언하자면 통일문학과 생태문학은 강원지역문학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강원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분단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지향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39] 또한 강원도는 우리나라 생태의 보고이며 자연의 보루이다. 이 역시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경이요 문학 본연의 생태적 의미를 실현하는 기제가 된다. 한국전쟁은 강원지역문학에 선험적 한계를 남겨놓았다. 또한 동시에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식적 전유는 강원지역문학이 한국전쟁이라는 대타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의무가 아닌, 이-푸 투안 식으로, 인간이 문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운명일 것이다.

39) 김영기, 「통일·생명 문학의 고향」, 『월간 태백』 1996년 1월호, 79쪽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강릉시사편찬위원회, 『강릉시사』, 강릉문화원, 1996.
강원일보사사편찬위원회, 『강원일보 40년사』, 강원일보사, 198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동윤, 「전란기의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2, 157-185쪽.
김영기, 「통일·생명 문학의 고향」, 『월간 태백』 1996년 1월호, 76-79쪽.
김윤식·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증보판), 현대문학사, 1994.
남기택, 「삼척지역문학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12, 361-381쪽.
남기택, 「최인희 시 연구」,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6, 119-141쪽.
남기택, 「강원지역의 문학매체 고찰」,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2, 45-66쪽.
남기택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모윤숙, 「詩薦後感」, 『문예』, 1953. 6, 129쪽.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서준섭, 「강원도 근대문학연구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11,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2, 107-118쪽.
서준섭·박민수·송준영, 「강원도 시단과 시를 말한다—지역성, 특이성, 보편성」(좌담), 『현대시』 2003년 8월호, 38-63쪽.
송기한·황금찬, 「시와 시인을 찾아서」(대담), 『시와시학』 24호, 1996. 12, 20-32쪽.
신봉승, 「무구 그리고 평화」, 최인희, 『여정백척』, 가리온출판사, 1982, 204-218쪽.
신봉승, 「『관동문학』 50년과 함께한 세월」, 『관동문학』 21호, 관동문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회, 2008, 11-20쪽.
엄창섭, 『김동명 연구』, 학문사, 1987.
엄창섭, 「강원문학의 사적 고찰—영동지역의 현대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331-348쪽.
양문규, 「강원지역문학의 생성방식과 발현양상」, 『작가와사회』 2004년 가을호, 16-29쪽.
전상국,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룸, 2005.
정연휘, 「문학 쪽에서 본 삼척」, 『실직문화』 1집, 삼척문화원, 1990, 60-77쪽.
조건상 편저, 『1950년대 문학의 이해』, 성균관대출판부, 1996.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1995.
이-푸 투안, 구동회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Korean War and Gangwon Regional Literature

Nam, Gi-T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 i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Especially, this paper give attention to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was an escalation of border clashes between two rival Korean regimes, each of which was supported by external powers, with each trying to topple the other through political and conventional tactics.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ys.

Regional liturature study is a method that sets the goal at discussion for a regional reorganization. The important materials as target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is media such as journal and organizations. The dominant media i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in 1950's is *Gangwon-Illbo*. And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s in local area are worthy of notice. As long as the age of War goes o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will have living present values. Fair value assessment of the regional literature can help rectify the unfair cultural structure and is a way to develop Korean literature itself.

Key Words : Gangwon regional literature, *Gangwon-illbo*, literary coterie magazine, media, locality, Korean War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0년 7월 30일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